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刊

統一經濟

1997. 10 통권 제34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統一經濟

10
1997
제 34호

편집자의 글
기다림 속에서도 꾸준한 모색을 2

초 점
북한의 개방 확대는 불가피하다 • 김정균 4

특 집
김정일시대의 남북 관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 • 지만원 10
남북 경협 전망과 민간 기업의 역할 • 조용준 17
사회·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색과 남북 관계 • 윤덕희 34

기획연구
북한의 商 관행 연구:
실제 접근의 현황과 오류를 중심으로 • 권오홍 42

논 단
북한 경제의 회복을 위한 대금 결제 상의
새로운 노력 • 윤기관 64
在러시아 북한 노동자 활용 방안:
실질적인 남북 경협의 출발점 • 김종일 80

통일다리
북한의 은행 • 신원태 89

북한경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현황(V)-'철도' • 이원호 95

통일연구
독일의 통일과 사회 정책 • 이준영 106

서 평
귀중한 학문적 기여와 새로운 북한 연구 경향을 대변 • 김용호 117
정규섭(1997), 「북한 외교의 어제와 오늘」, 일신사

총 권 제34호
등록번호 라-8925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7년 10월 10일
편집 및 발행인 김중용
편집위원 김순원(위원장)
김정균 홍순직
오삼교 이병부
이태섭 이원호
편집주간 심재철 황동환
편집교필 장은숙
발행처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경전파 (02)737-4006
F A X (02)730-1770
인쇄 서울활판터인쇄사
대표전화 (02)836-055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꾸준한 모색을

4 者예비회담이 아무 결실없이 무산되었다. 게다가 당분간 남북 관계의 새로운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북한은 김정일의 승계 준비로 또 남한은 대선 국면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대북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에 입각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처지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야 우리의 대북 정책과 전략이 마련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한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 노력만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는 이런 점에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 진단과 구체적 제안을 많이 담고 있다.

‘초점’에서 본 연구원의 김정균 연구위원은 북한의 개방은 움직일 수 없는 대세이며 개방 확대가 임박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북한은 외면상 체제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의 악화때문에 개방을 확대해가지 않으면 체제 유지도 어려운 단계에 들어서 있으며, 북한 당국자들 자신이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남북 경협 활성화와 북한 개방 유도 정책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된다.

‘특집’에서는 김정일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군사평론가인 지만원 박사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서 정치·군사적 긴장과 대립 속에서는 평화도 통일도 얻을 수 없음을 설명하면서 통일을 얻기 위해서는 남북 상호간의 군축이 첩경임을 주장한다. 특히, 남한의 군비 감축을 통해 남북한의 냉전 구조를 깨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은 기존의 통일 정책을 재삼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경제전문가인 조용준 Y&J컨설팅 대표는 “남북 경협 전망과 민간 기업의 역할”에서 북한이 단기적으로 전면적 개방이나 본격적 개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인 남북 경협 확대 조치 특히,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와 남포공단안의 적극적 진출을 제안하고 있다. 윤덕희 명지대 교수는 “사회·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색과 남북 관계”에서 남북 양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문화적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 비이념적 분야에서의 접촉 활성화,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 교류 채널의 다양화를 제시하고 있다. 교류의 방향을 이질성의 축소보다는 이질성 포용 능력의 확대에서 찾고 있는 점에서 이질성 극복의 주체적 조건을 강조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특집’의 필자들은 북한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대북 정책은 실효성이 적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확산

은 남북 관계 개선의 새로운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연구'는 권오홍 長漢信息(株) 대표의 "북한의 商 관행 연구"를 실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대의 경제 일꾼'들의 상 관행 의식과 행태를 자세히 논하고 있어, 북한과의 교역에 관심있는 우리 기업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 태세 평가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과 중국 '경제 일꾼'들의 의식 비교는 매우 흥미로우며 북한 지하 경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분석도 제공하고 있다. 북한 기업의 현황과 합영 기업의 운영 문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대북 경험시 남한 기업이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도 현장감이 살아있다.

이번 호의 '논단'은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다루고 있다. 충남대 윤기관 교수는 "북한 경제의 회복을 위한 대금 결제 상의 새로운 노력"에서 남북한 교역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금 결제 상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대응 구매와 신용장 결제, 청산 계정과 구 동서독간에 이용된 스윙제도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모스크바대학 인구-노동문제연구소 김종일 박사는 "在러시아 북한 노동자 활용 방안: 실질적 남북 경협의 출발점"에서 농림수산업, 석탄 에너지 산업, 수송업 등에서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들의 고품질 노동력을 활용할 경우 남북한 및 러시아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시리즈로서는 본 연구원의 이원호 연구위원이 '철도' 부문의 주요 정책과 현황, 문제점을 짚은 후 철도 부문의 남북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철도 사업은 북한의 취약한 교통 수단과 통신 및 전력 사업의 보강을 고려한 종합적 구상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남한 기업의 민간 투자를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연구' 시리즈에서는 이준영 서울시립대 교수가 "독일의 통일과 사회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독일의 흡수 통일이 구동독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실업 증가,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전 지출의 급속한 증가로 귀결되었음을 밝히고, 독일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직업 훈련 등 적극적 노동 시장 대책과 북한 실정에 맞춘 사회복지제도의 수립 등을 제안하고 있다.

남북 관계가 당장은 소강 상태에 들어섰으나 북한의 개방 확대와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은 서서히 익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김정일 승계와 남한의 대선 이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하여 보다 깊은 연구와 모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1997년 10월
편집자